



# “박지성 팔면 폭동 날거야~”

### 풀럼전 교체 출전하자 관중석서 ‘박지성송’ 울려 퍼져

### 시즌 첫 도움 화답...7경기 연속 출전 승률 86% ‘맨유 수호신’

“박지성을 팔지 말라. 만약 박지성을 판다면 (팬들의) 폭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 연속 출전해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맨유의 기파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15일(한국시간) 새벽 풀럼FC와 정규리그 홈경기가 벌어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트래퍼드 구장. 선발 출전자 명단에 빠져 벤치를 지키던 박지성이 후반 28분 안토니오 발렌시아와 교체돼 그리온드에 들어서자 관중석에선 박지성을 위한 새로운 응원가인 ‘박지성송’이 울려 퍼졌다. 박지성을 다른 구단에 내줄 수 없다는 맨유 팬들의 신뢰와 애정이 담긴 노래였다.

그는 1-0의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순간에 투입돼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며 풀럼 수비진을 흔들었다. 후반 30분 왼쪽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잡은 박지성은 수비수를 앞에 두고 감각적인 토키를 올렸다. 공은 정확하게 디미타리 베르바토프의 머리를 겨냥했다. 그러나 베르바토프가 공의 방향을 너무 꺾는 바람에 공은 오른쪽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박지성의 도움이 기록될 뻔한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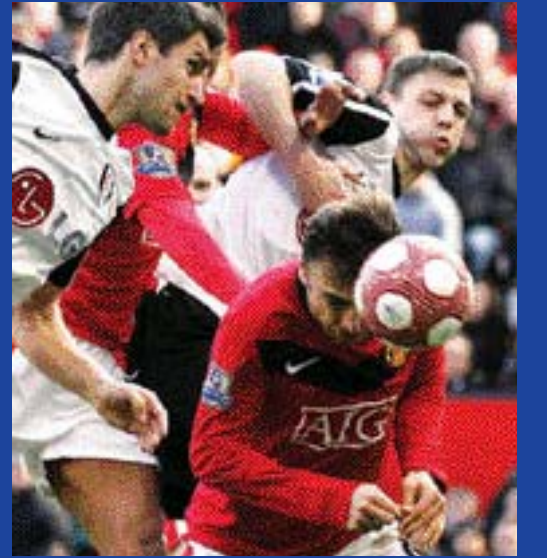
맨유는 박지성이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공격 주도권을 되찾았고 선제골 주인공의 웨인 루니의 추가골로 2-0으로 앞섰다.

2점차 리드를 잡은 맨유의 승리를 확정하는 썬더볼을 박지성의 발끝에서 시작했다.

후방에서 루니의 톱패스가 올라오자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박지성은 공을 침착하게 정지시키고 나서 골문에 도사리던 베르바토프를 보고 크로스를 해줬고 베르바토프는 몸을 날려 다이빙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박지성의 올 시즌 첫 어시스트가 작성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11일 AC밀란(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 때 썬더볼(시즌 2호골)을 사냥한 데 이어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다.

특히 박지성은 이날까지 정규리그 4경기과 UEFA 챔피언스리그 2경기, 칼링컵 1경기 등 총 7경기 연속 출전했는데 이 기간 맨유는 6승1패로 85.7%의 높은 승률을 보였다. 박지성이 빠졌던 9경기에서 승률이 55%에 불과했던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박지성은 지난 1일 애스턴 빌라와 칼링컵 결승에선 선발로 나서 84분을 뛰면서 맨유의 칼링컵 2회 연속 우승에 앞장섰다. ‘꿈의 무대’라는 AC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 두 경기에 모두 풀타임으로 출전한 박지성은 2차전에서 썬더볼까지 넣으며 소속팀을 8강으로 이끌었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는 물론이고 AC밀란과 경기 때는 루니의 뒤를 받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그리온드를 누렸다. 또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 첫 공격포인트 작성의 제물이었던 풀럼과 이날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추가하며 한 팀을 상대로 2골 4도움을 작성해 ‘풀럼 천적’임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맨유 베르바토프가 후반 44분 박지성이 올린 크로스를 몸을 날려 다이빙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지성, 나니·발락보다 앞에

박지성이 미드필더 중 세계 44위에 올랐다.

A매치-클럽 경기 기록을 점수로 환산해 랭킹을 결정하는 사이트인 FTBL.com이 15일(이하 한국시간) “박지성은 미드필더 부문에서 100.29점을 얻어 세계 44위에 랭크됐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지난달 1일 열린 리그 24라운드 아스널 전부터 지난 15일 열린 리그 30라운드 풀럼전까지

최근 팀이 치른 10경기 가운데 8경기에서 나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총 100.29점으로 50위 루이스 나니(맨유·98.88)와 55위 미하엘 발락(첼시·97.2)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1위는 255.03점을 기록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차지했으며,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195.93·2위) 사비 에르난데스(바르셀로나·166.21·

A매치-클럽경기 점수로 환산

미드필더 부문 세계랭킹 44위

3위) 프랑크 람파드(첼시·163.88·4위) 즈브제즈단 미시모비치(볼프스부르크·157.03·5위)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월 초 143.56점으로 공격수 중 세계 22위에 올랐던 박주영(25·AS모나코)은 최근 부상으로 인한 잦은 결장으로 106.72점으로 85위까지 떨어졌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25호골- 맨유 웨인 루니



21호골- 첼시 디디에 드로그바

## 맨유 불붙은 EPL 선두 다툼 첼시 득점왕 경쟁도 후끈

중반으로 치닫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선두 경쟁과 득점왕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1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2009-2010시즌 정규리그 30라운드 홈경기에서 풀럼FC를 3-0으로 완파하고 전날 첼시와 아스널에 내쫓았던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맨유는 시즌 21승3무6패(승점 66)로 2위 첼시(20승4무5패), 아스널(20승4무6패·이상 승점 64)을 승점 2점차로 따돌렸다.

맨유와 아스널이 나란히 전체 38라운드 중 30경기를 치른 반면 첼시는 한 경기를 덜 치러 최종 우승컵을 어느 팀이 차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최근 경기에선 맨유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맨유는 지난달 21일 에버턴 원정에서 1-3으로 탈미를 잡혔지만 이후 정규리그에서 3연승 휘파람을 불고 있다. 3월 1일 애스턴 빌라와 리그 컵대회인 칼링컵 결승에서 2-1 승리를 누려 2회 연속 우승을 이뤘고 지난 11일 AC밀란(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선 4-0 대승을 누려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두 경기를 포함하

면 5연승의 기파른 상승세다. 지금 같은 기세라면 맨유로선 EPL 역사상 최초의 4회 연속이자 팀 통산 19번째 우승도 노려볼 만하다.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던 2005-2006 시즌 이후 4년 만의 정상 탈환에 나선 첼시와 2003-2004시즌을 제패했던 아스널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선두 다툼 못지않게 득점왕 타이틀 경쟁도 흥미롭다.

웨인 루니(맨유)는 이날 풀럼과 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사냥하며 시즌 25호골로 디디에 드로그바(첼시, 21골)를 내갈 차로 따돌리고 득점 부문 선두를 질주했다.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4골과 칼링컵 2골, 커뮤니티실드 1골까지 포함하면 시즌 32골의 무서운 골 폭풍이다.

루니는 최근 연속골 사냥을 했던 네 경기에서만 7골을 쓸어담은 여세를 몰아 정규리그 30골과 함께 생애 첫 득점왕에 도전한다. 루니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드로그바도 지난 14일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쳐 20골로 득점왕에 올랐던 2006-2007시즌 이후 3년 만의 타이틀 획득을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준계리비 강진서 ‘몸 싸움’ 시작

15일 강진에서 열린 2010년도 춘계리비리그전 경선고와 대구상고의 개막전에서 양팀 선수들이 거칠게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대구상고가 12-8로 승리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고·순천공고 등 고등부 14개팀과 무진중·진도중 등 중학부 7개팀이 참가해 오는 25일까지 기량을 겨루게 된다. /강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베컴, 아킬레스건 부상... 월드컵 출전 무산 위기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꽃미남’ 미드필더 데이비드 베컴(AC밀란)이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출전의 꿈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베컴은 이날 새벽 이탈리아 밀라노 주세페 메차에서 치러진 2009-2010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 키예보 베로

이 아킬레스건이 찢어져 사실상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출전의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라고 보도했다.

베컴은 이날 새벽 이탈리아 밀라노 주세페 메차에서 치러진 2009-2010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 키예보 베로

나와 28라운드 홈 경기 종료 직전 발목을 잡고 쓰러졌다. 다른 선수와 충돌이 없었던 베컴은 발을 잡으면서 몸의 중심을 이동하다가 발목에 이상을 느끼면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미 3명의 선수를 교체한 AC밀란은 10명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베컴은 회복에 최대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잉글랜드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부상 사실이 전달돼 4회 연속 월드컵 출전의 희망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